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 듣기 대본

1.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가곡 『보리밭』을 듣고 계신데요, 오늘의 주제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선사시대부터 재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도 보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보리 씨앗을 비둘기 목에 달아 주몽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모작으로 보리를 경작해서 효과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리가 주식이 아니다 보니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보리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보리는 쌀에 비해 칼슘, 철, 인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섬유소도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보리는 새삼 환영받는 곡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보리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공 식품의 재료에서 동물용 사료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보리밭을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보리는 참 쓸모가 많은 작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다음은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선 시대의 모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볼까요? 드라마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앞쪽에 두 사람이 있군요.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오른쪽에, 윗부분이 잘린 원뿔 모양의 모자가 보이나요? 전모라고 합니다. 부녀자들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던 외출용 모자인데, 대나무로 삿갓 모양의 테두리를 만들고 여기에 종이를 발랐습니다. 무늬가 화려하죠?

맨 왼쪽 남자가 쓴 것은 패랭이입니다. 정수리 모양이 둥근 패랭이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만들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썼는데 보부상들은 목화송이를 큼직하게 엮어서 쓰기도 했죠.

화면 중앙에 나란히 서 있는 세 남자를 볼까요? 이 사람들이 쓴 모자는 모두 양반들이 주로 쓰던 것입니다. 그중, 가운데 사람이 쓴 모자는 유건이라고 하는데요, 검은색 베나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유건은 주로 유생들이 성균관 같은 학교나 집 안에서 썼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쓴 것은 탕건입니다.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마치 계단처럼 턱이 진 형태죠? 탕건은 유건과 달리 말의 갈기나 꼬리털인 말총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 중 오른쪽 남자가 쓰고 있는 모자는 갓입니다. 갓은 머리를 덮는 부분과 둥근 형태의 차양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나무와 말총을 주재료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탕건만을 쓰고, 외출할 때는 갓을 썼지요.

3. 다음은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 이 시간에는 과학 기술 평론가 박 선생님을 모시고 적정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 : 네, 안녕하십니까?

여 : 먼저,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남 : 네, 적정 기술은 첨단 기술로부터 소외된 다수를 위한 기술입니다. 주로 가난한 나라나 저소득층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 : 예를 하나 들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남 : 큐드럼(Q-Drum)이라는 물통이 있습니다. 식수를 얻기 위해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아프리카의 시골 주민들을 위해 개발한 것이죠. 지름이 50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드럼통을 떠올려 보세요.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사이를 관통하여 줄이 걸려 있습니다. 물통을 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는 대신 줄을 이용해 굴리면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도 손쉽게 운반할 수 있죠.

여 : 기술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소박하군요.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남 : 네, 지세이버(G-saver)라는 것도 있습니다. 몽골은 겨울철 기온이 낮아 난방이 중요한데요, 지세이버는 기존 난로 위에 부착하는 소형 기기로 열을 오래 지속시켜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설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연료 소모량을 40% 정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 :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적정 기술은 _____.

[4~5] 다음은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 오늘 신문 봤어? ‘리더는 성과로 말한다’라는 특집 기사가 났더라. 역시 뛰어난 리더가 되려면 성과가 중요한 것 같아.

남 : 당연히 성과도 중요하지. 하지만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

여 : 그게 무슨 말이야?

남 : 너도 알다시피, 연극 경연 대회에서 우리 동아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연습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단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결국 그만둔 단원도 있었잖아. 우리 동아리 회장이 진정으로 뛰어난 리더였다면, 단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들었을 거야.

여 : 글썄……. 나는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덕분에 역대 어느 회장도 이룩하지 못한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우리 모두 기뻐했잖아. 그런데 합창반을 봐. 단원들 의견을 일일이 듣다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지역 대회에 나가지도 못했어. 이런 합창반 반장을 뛰어난 리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남 : 그것은 합창반 반장이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해. 그리고 구성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고.

여 : 단원들이 연습 과정에서 불만이 생긴다면, 나중에 적절하게 보상하면 되잖아!

남 : 아니지, 그러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 심지어는 부당한 요구조차 정당화될 수 있어.

여 : 너의 말은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남 : 그뿐 아니라 뛰어난 리더는 리더 자신보다도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리더라야, 헌신하고 봉사하는 리더도 될 수 있거든.